

경찰, 노동자·노동조합만 때려

노동조합 활동 경찰 폭력 대응 규탄 국회 기자회견 ... “윤석열·자본의 경찰인가?”

금속노조와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경찰은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과 무차별 연행 등 탄압을 중단하라” 라고 촉구했다.

최근 금속노조 경기 안산 한국와이퍼, 충남 당진 현대제철, 전북 완주 일진하이솔루스 등 전국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경찰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위법 연행을 거듭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각 정당은 5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의 불법은 비호, 노조의 정당한 투쟁은 폭력연행,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현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경찰은 사측의 불법,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노동자를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창현 수석부지회장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가 뭘 그리 잘못했나. 우리가 죄인인가”라면서



“경찰이 다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압·위법 공권력 행사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에 불법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던 중, 전북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미란다원칙도 알리지 않고, 폭행하며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당진 현대제철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벌이는 정당한 선전전을 진압하고 간부들을 폭력 연행한 사태는 경찰 공권력이 대기업 총수의 경호원을 자처한 불법 행위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에 발맞추기 위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짓밟은 짓이다”라고 규탄했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 5월 4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현대제철에 방문했을 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내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조합원들의 목을 조르고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경찰의 폭력대응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발맞춰 알아서 충성하는 행위다”라며 “저도 비정규직 금속노동자였다. 불법파견 범죄를 고소·고발해도 경찰과 검찰은 사측 책임자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노조를 적극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와 한 몸이 된 경찰 수뇌부는 행동 대장을 자처하며 특진까지 내걸고 노조 괴롭히기에 혈안이다”라면서 “노동과 삶의 권리에 대한 소박한 요구는 어느새 범죄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반노조 기조에 따라 경찰이 충성 경쟁을 하는 권위주의 시대로 정부가 회귀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삼권 행사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사측의 불법 행위를 엄정히 대응,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동자가 악랄하고 추악한 LG 바꾼다”

LG전자·LG케어솔루션·하이엠솔루텍·하이텔서비스·하이프라자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LG전자와 자회사 소속 금속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위에 군림하려는 LG 자본을 뜯어고치기 위해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5월 24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앞에서 ‘일방통행 LG를 민주적 LG로. LG 노동자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김도현 노조 서울지부장은 대회사로 통래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와 숨진 LG디스플레이 노동자를 언급하면서 “두 노동자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다. 한 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다른 노동자는 상급자의 강압과 업무지시로 죽임을 당했다” 라면서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도현 서울지부장은 “금속노조는 5월 3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함께해달라” 라며 “금속노조 LG전자 다섯 개 지회가 함께 싸워 임단투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도 때려잡자” 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현재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 지회, 하이텔서비스지회, LG케어솔루션지회, 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지회, 하이엠솔루텍지회 등 다섯 개 지회가 LG 자본을 상대로 임단협, 소수노조 탄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LG전자지회, 하이텔서비스지회, 하이엠솔루텍지회는 소수노조로 교섭권이 없지만, 곳곳하게

지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포대회에 참석한 노조 서울지부 ▲설정석 LG전자 지회장 ▲박지완 하이텔서비스지회장 ▲김정원 LG케어솔루션지회장 ▲김태훈 하이엠솔루텍지회장 ▲이제현 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지회장 등은 한목소리로 민주노조를 애써 외면하는 LG자본을 규탄하고, 2023년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김정원 LG케어솔루션지회장은 “우리는 대기업 LG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라며 “LG는 사회봉사 활동과 서민 이미지, 독립자금을 지원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시민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악랄하고 추악한 기업이다” 라고 꼬집었다.

김정원 지회장은 “노사협력과 상생을 표방하는 LG는 민주노조가 생기면 친사노조를 만들어 무력화하고, 노사관계에서 민주노조를 철저히 무력화한다” 라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는 LG케어솔루션을 제외한 네 개 LG사업장에 금속노조가 생기자 어김없이 친사노조가 들어섰다” 라고 고발했다.

LG 역시 다른 재벌 대기업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정원 지회장은 “우리는 LG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일하지만, LG는 노동자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적반하장격으로 LG는 자회사 임금과 처우에 관한 결정권을 휘두르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김정원 지회장은 “올해 LG케어솔루션지회가 요구한 4,700여 명 노동자 전체 임금 인상액 규모는 140억 원 정도다. 지난해 구광모 LG회장은 연봉과 주식 배당금, 자회사 주식 배당금을 포함해 회사돈 1,400억 원을 챙겨갔다” 라면서 “LG 재벌이 자회사를 만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짠 결과다” 라고 규탄했다.

김정원 지회장은 “책상머리에 앉아 숫자놀이만 하는 저 높으신 양반들에게 가르쳐주자. LG노동자는 주는 대로 받고 만족할 생각이 없다” 라며 “우리 노동을 제대로 평가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장하자.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 자본, 조선하청노동자 470억 원 손배소 취하하라”

23일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무리 ‘한화오션’ ... “무분별 손배소 경영정상화 걸림돌”

“한화는 오늘 아침 주주총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오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다섯 명에 대한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5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하청노동자 옥죄는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 취하·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화 자본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470억 원 손배소송 법률대리인단,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열었다. 이들은 한화에 조선하청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와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470억 원 손배소 피해자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 자본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서 35억 원이던 대우조선해양 임원 임금 상한선을 50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라며 “게다가 한화는 임원들의 경영책임을 아예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해 조선하청노동자 투쟁 때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올해도 똑같은 상

황이다. 이대로 살 수 없다” 라면서 “지난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조선하청지회와 교섭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한화오션은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와 교섭을 해야 한다”라



고 촉구했다.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사측의 정의행위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버리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조선업 사용자들은 앞에서 상생한다면서 뒤에서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고,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손배 소송을 이어가는 양두구육 행태를 보인다”라면서 “정의당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470억 원 손배소송 법률지원단의 유태영 변호사는 “노동자 처지에서

470억 원이든, 1%인 4억 원이든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며 “대우조선해양이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낸 인지대만 1억 4천만 원이었다. 이 판결 끝에 과연 원청에 어떤 이득이 남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한화그룹이 진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470억 원이라는 무분별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라면서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를 함께 노 젓는 동

반자로 인식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 등을 개선하려는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핑계로 지회 간부 다섯 명을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소송의 첫 재판을 5월 18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경영진이 이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 일정 변경을 요청하자 9월 21일로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가결하고 인수를 마무리했다.